



미 증시, 지표 및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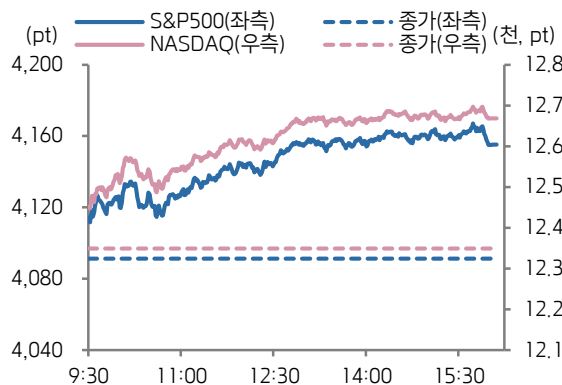
3 일(수) 미국 증시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불안 완화, ISM 서비스업 PMI 호조, 스타벅스(+4.3%), 페이팔(+9.3%), 모더나(+16.0%)등 주요기업들의 호실적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1.3%, S&P500 +1.6%, 나스닥 +2.6%)

미국 7 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는 47.3(예상치 47.0, 전월치 47.0)으로 위축국면에 진입했지만, ISM 서비스업지수는 56.7(예상치 53.5, 전월치 55.3)으로 발표되며 예상치와 전월치를 크게 상회. 6 월 내구재 주문 역시 전월대비 2.0%(예상치 1.9%, 전월치 1.9%), 공장재 수주 전월대비 2.0%(예상치 1.2%, 전월치 1.8%)로 양호하게 발표.

OPEC+는 정례회담에서 9월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 7~8월 증산량인 하루 64만 8000배럴을 하회하는 수준. OPEC+는 미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봉쇄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가능성 때문에 추가 증산에 나설 유인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증산량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간 원유재고가 3 주만에 증가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4%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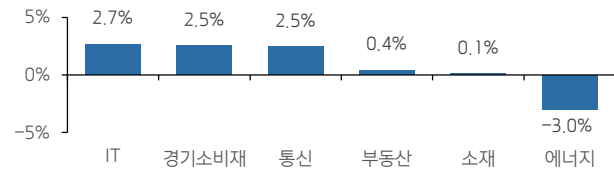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3%)업종 제외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IT(+2.7%), 경기소비재(+2.5%), 통신(+2.5%)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소재(+0.1%), 부동산(+0.4%)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모더나(+16%), CVS 헬스(+6.3%) 등 호실적 발표하며 헬스케어 강세를 견인. 가이던스 부진으로 하락한 AMD(-1.2%)는 나스닥 강세로 낙폭 제한.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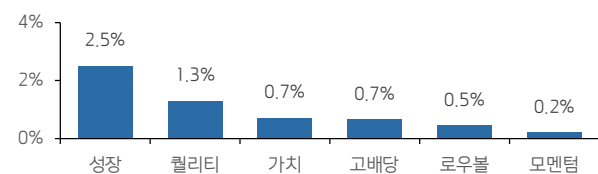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55.17	+1.56%	USD/KRW	1,310.50	+0.41%
NASDAQ	12,668.16	+2.59%	달러 지수	106.37	+0.12%
다우	32,812.50	+1.29%	EUR/USD	1.02	+0.03%
VIX	21.95	-8.27%	USD/CNH	6.76	-0.02%
러셀 2000	1,908.93	+1.41%	USD/JPY	133.84	-0.01%
필라. 반도체	3,053.46	+2.6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426.61	+1%	국고채 3년	3.067	+6.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120	+4.5bp
Eurostoxx50	3,732.54	+1.3%	미국 국채 2년	3.065	+1.4bp
MSCI 전세계 지수	639.00	+0.9%	미국 국채 10년	2.705	-4.4bp
MSCI DM 지수	2,728.30	-0.7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4.32	-1.08%	WTI	90.66	-3.98%
MSCI 한국 ETF	60.46	+1.73%	금	1776.4	-0.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7.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출국에 따른 미중 갈등 단기 소강 가능성 2. 미국 빅테크 및 바이오주 강세가 국내 관련 성장주들 주가에 미치는 영향 3. 카카오, KT&G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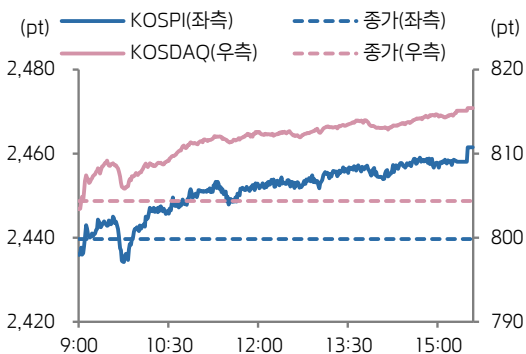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술적 침체를 맞이한 과정에서 실물 수요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 현재까지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같은 수요 부진에 따른 침체 장기화 불안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실물 지표들이 양호하다는 점이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1일 발표된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PMI(52.8, 예상 52.0)에 이어 전일 발표한 7월 ISM 서비스업 PMI(56.7, 예상 53.5)도 견조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애틀랜타 연은의 3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플러스로 시작한 모습(1.3%, 1일 기준).

분기 초입인 만큼 3분기 성장을 반등을 확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며, 이 같은 성장을 문제 뿐 아니라 연준의 긴축 강도, 최근 증시 내 포착되고 있는 가치주→성장주 로테이션 지속 여부 등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달려있다고 판단. 이와 관련해 최근 증시 분위기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시장 대부분 참여자들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7월 ISM 제조업 가격지수(78.5→60.0), ISM 서비스업 가격지수(80.1→72.3) 등 기업들의 체감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내 가솔린 가격도 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황. 더 나아가, 3일 OPEC+ 회의에서 산유국의 미미한 증산(9월 +10만 배럴) 결정 소식에도, WTI 국제유가가 최근 재고부담, 투기수요 이탈 등으로 9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점도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

다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은 지난 6월 미국 CPI 발표 이후 형성되면서 현재까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즉, 10일(수) 발표 예정인 7월 미국 CPI 컨센서스가 8.8%(6월 9.1%)로 형성되면서, 시장참여자들도 피크아웃을 이미 상정하고 있는 상황. 이를 감안 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피크아웃을 달성하더라도 증시 반응은 크게 없을 전망이다. 이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올 시에는 증시는 한차례 단기 안도 랠리를 시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중립 이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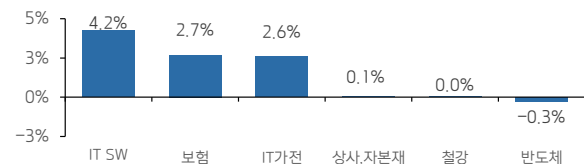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무사 출국에 따른 미중 갈등의 단기 소강 국면 진입, 나스닥 강세, 환율 고점 인식 등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 여건으로 개선시키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금리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애플(+3.8%), 아마존(+4.0%) 등 빅테크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국내 IT를 포함한 성장주들의 견조한 주가흐름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2분기 호실적 및 양호한 가이던스를 제공한 모더나(+15.97%)를 중심으로 미국 바이오주들의 강세 역시 국내 바이오주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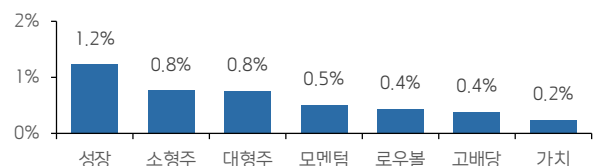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며,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